

■ 주요 뉴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금리인하 여지 충분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동결 지지

- 미국 트럼프, 생물보안법 최종 서명. Nvidia의 H200 중국 수출 검토 절차 착수
- ECB 주요 인사,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 시 현행 금리 수준이 적절
- 중국, 미국 국채 보유 규모는 17년래 최소 민간 기업의 Nvidia 의존 축소 노력 지속

■ 국제금융시장(주간): 미국은 11월 실업률 및 소비자물가 결과 등이 영향

주가 상승[+0.1%], 달러화 강세[+0.2%], 금리 하락[-4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반영하며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
유로 Stoxx600지수는 영란은행 금리인하 등으로 1.6%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파운드화 및 엔화 약세 등이 배경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3%, 1.2%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년 만에 최고치 기록한 11월 실업률 등이 원인
독일은 ECB 금리인하 기대 약화, 프랑스 재정 건전성 우려 등으로 4bp 상승

※ 원/달러 환율(주간) 0.1% 상승, 한국 CDS 하락

		12/19일	12/12일	전주말대비			12/19일	12/12일	전주말대비
주가	미국	6,834.5	6,827.4	+0.10%	국채 금리 10y	미국	4.15%	4.18%	-4bp
	유럽	587.50	578.24	+1.60%		독일	2.90%	2.86%	+4bp
	중국	3,890.4	3,889.3	+0.03%		영국	4.52%	4.52%	+1bp
	일본	49,507	50,837	-2.61%	CDS 5y	한국	22bp	23bp	-1bp
	한국	4,020.6	4,167.2	-3.52%		중국	44bp	43bp	+1bp
환율	달러지수	98.60	98.40	+0.20%	위험 지표	EMBI+	271	268	+3bp
	유로화	1.1710	1.1740	-0.26%		VIX	14.91	15.74	-5.27%
	엔화	157.75	155.81	-1.23%		WTI유	56.66	57.44	-1.36%
	위안화	7.0410	7.0550	+0.20%	원자재	구리	544.0	528.4	+2.95%
	원화	1,478.0	1,477.0	-0.07%		금	4,338.9	4,299.6	+0.91%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금리인하 여지 충분.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동결 지지

- 강력한 차기 연준 의장 후보 중 한 명인 백악관의 해시 국가경제위원장은 일부 전문가들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낮은 수준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동의한다고 언급
- 또한 인플레이션(근원 소비자물가지수)은 3개월 이전을 비교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이를 적용하면 인플레이션은 1.6%에 불과, 연준의 목표(2%)를 하회하게 된다고 주장. 특히 이러한 여건에서는 금리인하 여지가 충분하다고 부연
- 이에 더해 노동시장에 대해서도 긍정적 시각 유지. 신규 고용이 줄었지만, 이민정책의 변화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미국 태생 노동자들이 성공적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평가. 아울러 관세수입 증가와 재정적자 감소를 언급했으며, 이는 가계 지원을 위한 재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의미로 해석
- 클리블랜드 연은의 해맥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으로 회귀하거나, 고용 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기존 통화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 노동시장 개선이 중요하지만, 자신은 인플레이션의 목표 달성에 집중하고 있다고 첨언
- 한편, 주요 투자은행들은 내년 1~2회의 금리인하를 기대하는 가운데, CME의 FedWatch는 내년 2회의 금리인하(3월과 7월, 각 0.25%p)를 예상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트럼프, 생물보안법 최종 서명. Nvidia의 H200 중국 수출 검토 절차 착수

- 트럼프 대통령은 생물보안법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안에 최종 서명. 생물보안법의 핵심은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할 우려가 있는 특정 바이오 기술 제공자와의 계약을 금지하는 것이며, 이는 특히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 우려 기업 명단에 포함될 경우 미국 행정 기관에 대한 장비 및 서비스 판매가 불가능
- 미국 정부는 Nvidia의 AI 칩 H200의 중국 수출에 대한 검토 절차 착수.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H200의 중국 수출을 허용한 만큼 이는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로 평가. 다만 의회 일부에서는 H200의 중국 판매에 대한 우려가 여전

■ Goldman Sachs, 금 가격 상승 및 유가 하락 추세는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

- 댄 스투리벤 애널리스트 등은 금년 상품시장의 특징인 금 가격 상승과 유가 하락이 내년에도 유효할 것으로 예상. 금 가격은 금리인하 및 중앙은행의 매입이 지속되며 상승이 이어지고, 유가는 공급 과잉에 하방 압력 커질 것으로 전망

■ 러시아, 미국이 제시한 우크라이나 평화안 수용. 유럽·우크라이나 요구에는 불응

-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한 평화 제안(러시아의 주장을 대부분 포함)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발언. 그러나 유럽 혹은 우크라이나가 요구한 바를 응하지는 않겠다고 첨언. 한편, 9월까지의 상황을 종합한 미국 정보당국의 보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점령 목표는 불변

■ ECB 주요 인사,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 시 현행 금리 수준이 적절

- 스페인 중앙은행 총재인 에스κρι바 위원은 금리를 조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당분간 통화정책은 안정적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발언. 포르투갈 중앙은행 총재인 페레이라 위원과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인 코처 위원도 향후 수개월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에 근접할 것이라면서 현행 금리가 적절하다고 평가

■ 중국, 미국 국채 보유 규모는 17년래 최소. 민간 기업의 Nvidia 의존 축소 노력 지속

-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10월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 규모는 6887억달러로 '08년 11월 이후 최저. 중국은 미국 재정 불안 등을 이유로 금 매입을 확대
- 한편 중국 기업 Moore Threads Technology는 차세대 AI 칩을 공개하고, 이는 Nvidia 주력 모델 H100, H200 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최신 제품인 블랙웰에 근접한 성능을 갖췄다고 주장. 이를 통해 Nvidia 의존 축소를 기대

■ 일본과 중앙아시아 5개국, 원자재 공급 강화 등 3조엔 규모의 투자 목표 설정

- 일본과 중앙아시아 5개국은 5년간 3조엔 규모의 투자 목표를 설정. 특히 중앙아시아 5개국의 주요 광물 및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 등을 포함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2/22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9월 시카고 연은 전미경제활동지수, 중국 인민은행 대출우대금리(LPR) 결정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26년 미국 경제, 시장은 인플레이션 위험을 과소평가 - Financial Times

(Inflation risk is still under-appreciated by investors)

- 시장에서는 내년 금리인하 지속 전망이 강화하고 있지만, 경기 순환적·구조적 요인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상승 및 채권금리 상승 위험을 과소평가. 재정 부양, AI 투자, 통화 완화가 경제 성장을 다시 자극할 것으로 보이는데, 생산 능력은 이미 한계에 가까워 물가상승 압력이 누적
- 또한 재정적자 확대, 공급망 파편화, 전력 수요 급증 등으로 인플레이션은 장기간 통화당국 목표를 웃돌 가능성.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주식과 국채의 상관관계가 높아져 실물자산 등으로의 분산투자가 중요. 특히 구매력 유지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인플레이션 시나리오에 대비할 필요

■ 미국 경제의 불안 요인 쟁점, 인플레이션에서 일자리 문제로 옮겨질 전망 - WSJ

(Jobs Could Soon Replace Prices as Focus of Anxiety)

-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이 경제의 주요 불안 요인으로 대두.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상당 기간 꾸준히 낮아지며, 11월 물가상승률은 2.7%로 7월 이후 최저. 왜곡된 지표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향후 물가상승 압력 완화될 것으로 예측. 반면, 11월 실업률은 4년래 최고치인 4.6%를 기록하면서 소비 여력에 대한 우려 증가.
- 11월에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근로자가 크게 증가(전년동기 165→190만명)했고, 연간 임금상승률은 3.5%로 '19년 이후 최저. 이러한 가운데 기업들은 3분기 연속 일자리 축소 계획을 수립하는(Business Roundtable) 등 기업은 채용에 소극적. 관세로 인한 고용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지만, AI 발전에 따른 인력 대체 가능성은 상당한 우려

■ '26년 글로벌 외환시장, 주요국 금리 경로 불확실성 완화로 변동성 감소 예상 - 블룸버그

(FX Traders Bet on Calm Waters in Early 2026 as Policy Risks Fade)

- 최근 달러화, 유로화 등 주요 10개국의 1개월 통화 변동성은 5.81%로 '22년 이후 최저. 이는 전 세계적으로 개별 통화에 미치는 요인의 차별화가 점차 약해지기 때문이며, 결국 단기 측면에서의 위험 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임을 시사
- 특히,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의 향후 예상 금리경로가 다소 명확해지면서 정책 위험 역시 줄어들고 있는 상황. 다만, 일각에서는 영국 지방선거 및 연준 파월 의장 임기 종료 예정인 내년 5월 이후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제기. 또한 정치적 불확실성과 AI 버블 우려 등도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를 높일 수 있는 잠재 요인

■ '26년 신흥국 투자, 고수익 기대 등으로 양호한 흐름 유지될 소지 - 블룸버그

(Emerging Markets Bring High Hopes for 2026 After Stellar Year)

- 금년 신흥국 금융시장에 대한 자금 유입은 '09년 이래 최대. 특히 신흥국 증시는 미국 증시보다 나은 성과를 보였고, 국채 수익률 격차도 최저. 이에 투자자들 사이에서 신흥국 투자 관련 비관론은 드문 상황. 이는 미국 투자 비중이 감소하는 가운데 신흥국의 부채 감소, 인플레이션 억제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
- 또한 달러화 약세 및 AI 투자 증가 등으로 신흥국 자산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 일각에서는 '26년 신흥국 채권펀드에 최대 500억 달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 다만, 연준의 금리인하가 예상과 다를 경우, 달러화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가정을 감내할 수 있는 신흥국 투자도 고려할 필요

■ 선진국의 공공 부채 문제, 해결 어려워 금융위기 및 정치 불안 초래할 우려 - Financial Times

(Have we reached a tipping point on public debt?)

■ '26년 미국 기술주 행방, AI 실효성투자 비용 대비 수익률(ROI) 입증 등이 관건 - 블룸버그

(Bubbles and Boring Bets: What's Coming for Tech Stocks in 2026)

■ 미국의 Nvidia 칩 중국 수출 허용, 안보보다 기업 이익을 우선한 결정 - 블룸버그

(Boosting Nvidia's bottom line won't make Americans safer)

■ AI 사업, 데이터 사용 관련 법적 이슈 등으로 끊임없이 변화될 가능성 - 로이터

(AI data crunch speeds towards Napster moment)

■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장기 경기침체 극복 등 경제 정상화 기대 강화 - WSJ

(Japan Walks Back to Normalcy)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